





## 인플레이션 위험 점증, FOMC와 미 고용이 변곡점 형성시킬까?

Analyst 정성윤 02.788.7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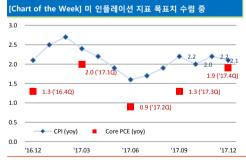
vumileana@h	yundaifutures.com
yunikongwn	yunuanutures.com

Equities				
		E.	변동률 (%)	
	종가 (p)	WTD	MTD	YTD
KOSPI	2,574.76	<b>▲</b> 2.16	<b>▲</b> 4.35	<b>▲</b> 4.35
KOSDAQ	913.12	<b>▲</b> 3.76	<b>▲</b> 14.37	<b>▲</b> 14.37
DOW	26,616.71	▲ 2.09	<b>▲</b> 7.16	<b>▲</b> 7.16
NASDAQ	7,505.77	<b>▲</b> 2.31	<b>▲</b> 7.99	<b>▲</b> 7.99
S&P 500	2,872.87	▲ 2.23	<b>▲</b> 6.90	▲ 6.90
SHANGHAI	3,558.13	▲ 2.01	<b>▲</b> 7.94	<b>▲</b> 7.94
NIKKEI 225	23,631.88	▼ -0.74	▲ 3.72	▲ 3.72
HANGSENG	33,154.12	<b>▲</b> 2.79	<b>▲</b> 11.02	▲ 11.02
HSCEI	8,600.99	<b>▲</b> 4.13	<b>▲</b> 17.46	<b>▲</b> 17.46
FTSE 100	7,665.54	▼ -0.84	<b>▲</b> 0.56	<b>▲</b> 0.56
DAX 30	13,340.17	▼ -0.70	▲ 2.78	▲ 2.78

FX Rates				
	_	Ę	변동률 (%)	
	종가	WTD	MTD	YTD
USD/KRW	1,063.90	▼ -0.19	▼ -0.62	▼ -0.62
USD/JPY	108.70	<b>▼</b> -1.74	▼ -3.66	▼ -3.66
EUR/USD	1.2447	<b>▲</b> 1.62	<b>▲</b> 4.19	<b>▲</b> 4.19
GBP/USD	1.4224	▲ 2.51	▲ 5.78	▲ 5.78

Treasury Yields				
		변동폭 (%p)		
	종가 (%)	WTD	MTD	YTD
KTB 3Y	2.222	▲ 0.052	▲ 0.088	▲ 0.088
KTB 10Y	2.679	▲ 0.041	▲ 0.210	▲ 0.210
JGB 10Y	0.075	▼ -0.003	▲ 0.019	▲ 0.019
UST 2Y	2.112	▲ 0.059	▲ 0.205	▲ 0.205
UST 10Y	2.664	▲ 0.005	▲ 0.230	▲ 0.230
Bund 10Y	0.628	▲ 0.119	▲ 0.202	▲ 0.202

Commodities				
			변동률 (%)	
	종가	WTD	MTD	YTD
WTI	66.14	<b>▲</b> 4.37	▲ 10.53	▲ 10.53
Brent	70.52	<b>▲</b> 2.78	<b>▲</b> 5.70	▲ 5.70
Copper	7,110.00	<b>▼</b> -0.14	<b>▼</b> -1.95	<b>▼</b> -1.95
Gold	1,351.60	<b>▲</b> 1.48	<b>▲</b> 4.44	<b>▲</b> 4.44



#### Review of the Previous Week

## 주요 이벤트 소화하며 위험선호 및 약달러 가속화

지난 주 국제금융시장은 미 정부의 달러화 관련 발언의 엇갈림 등으로 변동성이 동반되었으나 결국 주중 위험자산들의 추가 강세 시현. 미 셧다운 우려와 므누신 재무장관 발언을 뒤엎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 옹호 발언 등이 변동성 및 위험자산 가격 저항을 유발했으나, 상하원의 임시 예산안 통과와 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뉴욕증시의 사상최고치 경신 재개되며 위험서호 가속하를 주도.

BOJ는 기존 정책수단을 동결하고 구로다 총재 발언도 물가 하방 위험에 무게를 두며 출구전략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못박음. ECB 성명서 내용은 추가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기존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유지.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가 주요 정책회의 소화와 함께 완화된 점이 상기 리스크 온국면의 저변에 자리잡은 것으로 판단.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 지지 발언에도 불구, ECB와 BOJ가 각각 경제와 물가 평가를 개선시킨 점이 부각되며 달러 약세도 심화. 달러인덱스는 90p선과 89p선을 차례로 하회하며 2014년 12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

### **Preview of This Week**

### 인플레이션 위험 점증, FOMC와 미 고용이 변곡점 형성시킬까?

제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선호와 약달러 추세는 흔들리기보다 오히려 심화되는 중. 주말 발표된 미국의 4Q GDP도 2.9~3.0% 수준의 예상치를 크게 밑돈 2.6%에 머물면서 달러 약세폭 확대. 반면, 성장률 부진이 소비 급증(4Q 민간소비 증가율 3.8%, '14년 이후 최대)에 의한 무역적자 확대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미국 성장의 유효성을 반증, 주가와 금리 급등세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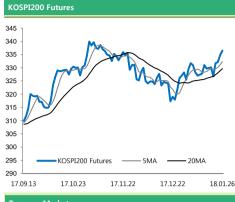
다만, 리플레이션 경제 특유의 자본시장 동반 강세(주가와 채권) 흐름이 이미와해된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개선이 주목되는 상황. CPI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던 가운데 GDP의 세부지표 중 하나인 4분기 근원 PCE가격지수는 전년대비 1.9% 상승하여 예상치(1.6%)를 대폭 상회함과 동시에 연준 목표치에 근접. 29일 발표될 12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이러한 물가상승 경로를 다시금 재확인시킬 경우 익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FOMC의 인플레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경계감을 키울 수 있음. 금번 FOMC는 옐런 현 의장의 마지막 회의임과 동시에 신규 교체위원들의 첫회의가 됨. 에반스, 하커, 카플란, 카시카리에서 메스터, 윌리엄스, 보스틱, 물리닉스로 대체되는 가운데 메스터, 윌리엄스 등의 매파 성향이 최근물가지표 개선과 함께 부각될 개연성 상존.

BOJ-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양 당국이 저물가에 대한 우려를 남겨둔 만큼 연준의 물가 자신감이 높아진다면 상대성 측면에서의 부각도가 커질 수 있겠음. 즉,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경계 확대로 최근의 위험선호 및 약달러 흐름에 대한 변곡점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비 필요. 단, 주말 고용보고서에서의 임금상승률 역시 주시대상인 바 가격변수에 대한 본격반영은 내주 이후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 마인드 겸비하며 접근할 것을 권고.





<sup>현대중공업그룹</sup> ──── ▲ 현대선물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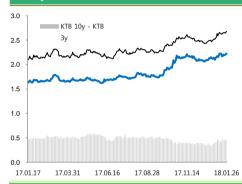
# 주간 예상 레인지: 330.00 ~ 343.50

뉴욕발 위험선호 가속화로 주초 고점 경신 흐름 이어질 전망. 단, 정책 정상화 기대에 따른 유로화 강세 속 유럽증시의 상대적 상방경직성 주목할 때, 미국 인플레 위험 부각 시 글로벌 증시 강세에 제동 걸릴 가능성 유의.

고점 경신 이후 FOMC와 미 고용지표 대기하며 기간조정 또는 가격조정(연준 매파적 기조 강화 시)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 리스크 관리

# Treasury Market

# 주간 예상 레인지: [KTB1712] 108.00 ~ 108.40, [LTB1712] 121.50 ~ 123.00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로 국내외 증시의 사상 최고치 흐름 지속되는 여파로 미국 및 독일 발 금리상방압력 심화. 추가조정 불가피.

FOMC가 최근 개선 중인 인플레이션 흐름에 대한 인지를 강화할 경우 금리 고점 추가로 높아질 수 있겠음. 다만, 미국의 정책 정상화 가속화 우려로 인한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과 미 고용지표 관망심리 등으로 고점 경신 후 추가 조정 압력은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

# USD/KRW

# 주간 예상 레인지: 1,058.0 ~ 1,0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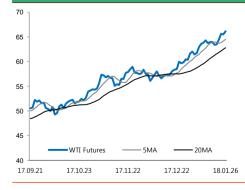


글로벌 달러 추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역외환율은 보합세. 1,050원대 진입에 대한 경계감 지속 상존하는 모습.

주가 강세와 월말 네고 우위 등으로 상방 압력 제한적이겠으나 미국의 인플레 위험의 상대적 우위가 확인될 가능성 속에 당국 경계 등에 의한 하방 경직성이 상단 트라이로 이어지는 흐름 예상

# WTI Futures

# 주간 예상 레인지: 64.80 ~



지난 주 가속화된 약달러 및 위험선호의 연장선 상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 있으나 FOMC 이후 리스크 회피 국면 발생에 유의. 전강후약 대응 권고.

단, 인플레 헤지 자산으로서의 메리트와 미국 성장에 대한 유효성 등으로 금주 중 조정폭은 제한적일 전망.



Jan 29. 2018.

주간 경제지표 및 이벤트				
국내		국외		
29-Jan		미 12월 개인소득 및 개인지출		
30-Jan		유 1월 경기체감지수 유 4Q GDP 독 1월 CPI 미 11월 S&P/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 미 1월 CB 소비자신뢰지수		
31-Jan	12월 산업활동동향	중 1월 CFLP 제조업, 비제조업 PMI 유 1월 소비자물가 [잠정] 유 12월 고용동향 미 1월 ADP 민간고용 미 1월 시카고 PMI 미 12월 잠정주택판매 미 FOMC		
1-Feb	1월 소비자물가 1월 수출입실적	유 1월 제조업 PMI 미 4Q 생산성 미 1월 ISM 제조업지수, 1월 제조업 PMI		
2-Feb		유 12월 생산자물가 미 1월 고용보고서 미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확정]		

# 주요 Charts

